

1. 최근 민간소비 흐름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

(조사국 동향분석팀)

- 국내 민간소비는 지난해 이후 재화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4/4분기 들어 그간 빠르게 반등하던 서비스소비도 둔화되면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었다. 재화 소비는 경제활동 재개 후 소비 리밸런싱과 그간의 금리·물가 상승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가계의 서비스 펜트업 수요도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 주요국에서도 대체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으나 그 양상은 국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미국은 견조한 노동시장과 가계의 양호한 재무상황 등을 배경으로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는 반면 유로지역과 일본은 경기 부진,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 앞으로 민간소비는 ①가계의 실질소득 개선이 소비여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②채무부담 누증, ③급속한 고령화 및 팬데믹 이후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른 소비 성향 제약 가능성은 감안할 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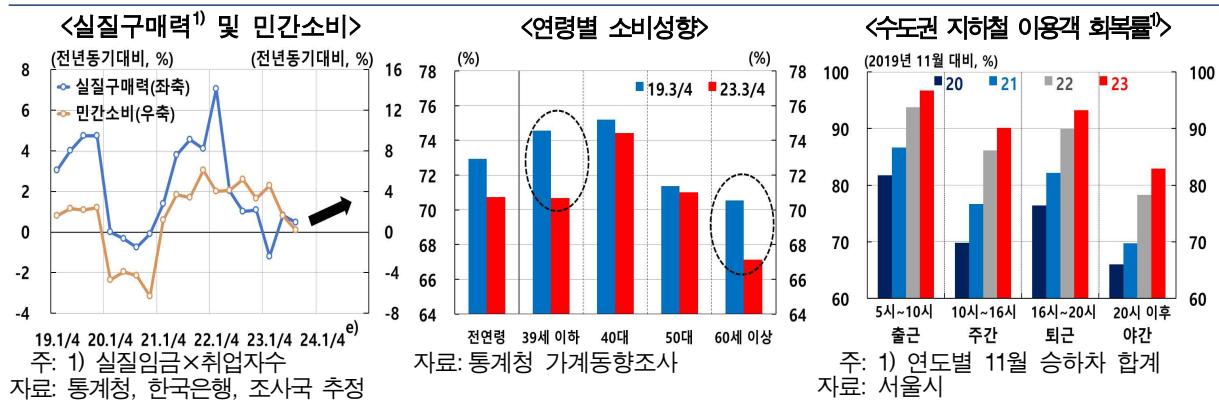
[① 실질소득] 가계 실질소득이 지난해 이후 기업실적 악화와 고물가 영향으로 빠르게 약화되어 가계소비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물가 오름세도 둔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이자비용] 금리의 상승기조가 본격화된 2022년경부터 대출이 많은 중·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소득대비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소비여력(실질가처분소득)의 개선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소비성향] 소비성향의 경우 팬데믹 충격으로 급락한 후 반등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더딘 상황이며, 향후 향방과 관련해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지, 또는 구조적 요인(고령화¹⁾·소비패턴 변화²⁾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지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가계 실질구매력 점차
개선될 전망

소비성향 팬데믹 이전 수준 하회,
팬데믹 이후 야간 이동 크게 감소
특히 청년층 및 60대 이상 크게 저하



1) 40대 미만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원리금상환 부담 등이 소비성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이전부터 기대수명 연장과 노후준비 부족이 맞물리면서 저축유인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2) 팬데믹 이후 크게 감소했던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은 최근 들어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회복하였으나, 20시 이후 야간 시간대의 경우 회복이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